

제80차 이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1.04.16.(금), 14:00~16: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위원 총 12명 중 9명 참석

- 참석위원 : 박만규 의 장, 김대중 부의장, 만성웅 평의원, 배상석 평의원, 유영문 평의원, 이삼구 평의원, 이소민 평의원, 조재현 평의원, 조지만 평의원, 윤정용(간사)
- 불참위원 : 김준형 평의원, 김현빈 평의원, 박진일 평의원
- 배석 : [본교] 총무처장, 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 정지혜, 예산팀장, 총무팀장(전 예산팀장)
[의료원] 행정부원장, 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 세무회계파트장

4. 의안

○ 보고사항

- 평의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및 의장 선출

○ 심의사항

- 이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자문사항

-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5. 주요 회의 결과

가. 보고사항

○ 평의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및 의장 선출

- 제8기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현황(임기 : 2020.01.20.~2022.01.19.)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교원대표 평의원	기계공학과	교수	박진일	신임
	불어불문학과	교수	박만규	신임
	행정학과	교수	배상석	신임
	의학과	교수	김대중	연임, 부의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지만	신임
직원대표	학술정보팀	과장	조재현	신임

<간서명 란>

의 장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평의원	의료원	-	-	결원으로 후임자 위촉 절차 진행중
학생대표 평의원	전자공학과	2020 학생회장	김현빈	신임
	문화콘텐츠학과	2020 부학생회장	이소민	신임
동문대표 평의원	(주)아산상조	부회장	만성웅	연임
	아이리스테크	대표이사	유영문	신임
교외인사	경희대학교	교수	김준형	연임
	(주)해동산전	대표이사	이삼구	연임

- 김대중 부의장이 공식인 의장의 선출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석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박만규 평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다.

나.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개정 주요 내용

- 제4조 및 제11조 : 연구기관 신설, 폐지 및 기관명 변경
 - 제8조 및 제53조 : 일반대학원 에너지학과 폐지, 의생명과학과 및 의용공학과 학위 추가

- 참석위원 전원 찬성에 따라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다.

다. 자문사항

○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1) 보고사항

- 행정부원장이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설명하다.

<간서명 란>

의 장



2) 자문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고가의 의약품 수요 증가를 인정하더라도 약품비 및 진료재료대 증가가 인건비에 비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이 요구됨. (추후 추가 자료 요청)
-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아주대학교병원의 경쟁력으로 가시적인 영향을 입고 있지 않음은 다행스러운 상황이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인근 지역의 경쟁 병원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선택의 문제일 수 있으나 본교 출신 간호사들이 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병원측의 관심이 필요함.

○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1) 보고사항

- 총무처장이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설명하다.

<간서명 란>

의 장

2) 자문사항

-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1학년 자퇴율 증가임. 특히 이는 해마다 1%씩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이에 대한 본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함.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각 학과 교수들의 접촉과 지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법인전입금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사학연금 법인전입금은 100% 부담하고 있으나, 법령 취지에 맞게 타 법정부담금도 100% 부담토록 촉구함. 이는 최근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려우므로 미납분의 공백이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임. 특히 경쟁 대학들의 경우 캠퍼스 내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주대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 국고사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경비가 감소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숙사식당, 학생식당 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현재는 팬데믹 상황이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상황이 종결될 경우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음.
- 국고사업은 학교 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최근 주요사업이 재진입에 탈락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단순히 관심과 노력에 의한 관리를 넘어,



탈락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평가 점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함.

- 기부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기부금 유치 등 기금 모금의 전략적인 정책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2021.04.16.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박만규
평의원	김대중
평의원	만성웅
평의원	배상석
평의원	유영문
평의원	이삼구
평의원	이소민
평의원	조재현
평의원	조지만
간 사	윤정용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